

조지 윈스턴 창원 공연 리뷰

일상에 지친 가슴 녹이는 '자연의 선율'



조지 윈스턴의 공연 모습.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첫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한대와 검은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무대 위로 조용히 걸어들어온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은 피아노 앞에 앉아 첫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흥겨운 재즈 리듬의 'New Orleans shall rise again #2', 객석의 관객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에 몸을 맡겼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 KBS 아트홀에서 열린 조지 윈스턴의 연주회는 세상사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전해준 공연이었다.

조지 윈스턴은 트레이드 마크인 서정적인 멜로디의 음악과 함께 흥겨운 비트의 피아노곡을 선보이며 묵은 밤에도 객석을 가득 메운 1천 800여명의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특히 피아노 뿐 아니라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까지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미국 몬타나 태생의 조지 윈스턴은 100만장 이상 팔린 'December' 음반을 통해

한국에 뉴에지 음악의 붐을 일으키며 국내 연주 음악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티스트다. '섬머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2009년 내한공연은 서울 등 11개 도시에서 펼쳐지며 광주 공연은 오는 7월 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의 이번 연주는 크게 두가지 컨셉으로 진행됐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인생을 연주한 '세계 시리드' 수록곡과 재즈 피아니스트 등 자신에게 영감을 준 뮤지션들의 음악에 바탕을 둔 곡들을 들려줬다.

'Rain'은 합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이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시작 후 한방울 한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듯한 풍광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줬다. 'Wood' 역시 숲속의 청명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상쾌한 곡이었다.

애니메이션 '피너, 스누피'의 사운드 트랙 수록곡인 'Woodstock', 'Pixie' 등은 흥겨운 멜로디와 다이내믹한 연주로 관객들 이여개를 들뜨게 했다.

또 새롭게 출시 예정인 음반 가운데 들

객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공연의 또 다른 매력은 그의 기타 연주와 하모니카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와이에서 만 볼 수 있는 전통 기타 연주 기법으로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하는 '슬랙 키' 기법의 곡 'Opihi moemoe'는 흥겨운 리듬에 어깨가 들쭉였고, 손안에 속 들어가는 작은 하모니카로 연주한 곡 역시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감성을 전해 줬다.

인터미션 시간을 포함해 2시간 넘게 공연을 펼친 조지 윈스턴은 관객들의 앙크로 요청에 기타 연주를 다시 한번 들려줬다. 공연 후에는 관객들을 위해 사인회도 여는 등 팬 서비스를 잊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연 중반부 무대 위 조명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조지 윈스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연주, 프로정신을 보여줬다.

티켓 가격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 5천원. 문의 062-220-0525.

/참평=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한소리회 '행복과 기쁨의 노래 한마당'

'문화 소외' 13곳 찾아
6월 한달간 특별공연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온 '한소리회'(대표 박미애)가 6월 한 달간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특별한 공연, '세계적 문화나눔, 행복과 기쁨의 노래 한마당'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영락정신요양원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전남·전북·경북 등 전국 13곳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총 13회의 공연을 여는 일정이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관객 눈높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클래식과 뮤지컬은 물론 대중가요, 민요, 동요, 민화 주제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연주하며 안무를 곁들여 관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견성악가 유정민·이윤순·이지영·신재은·박정화·임영란씨와 신인성악가 이현숙·박유미씨가 출연하고 피아노 반주는 천현주씨가 맡았

25일 광주 라마다프라자

제1회 아시아 생태 문화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25일 오전 9시~오후 6시 광주 라마다프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운영 준비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한국의 대표 석학 박미문(사건·연세대 특별초빙교수)씨가 '생태 위기와 아시아의 생태문화'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며 '아시아 생태+문화란 무엇인가', '아시아 생태문화의 개념과 범주', '생태문화로 아시아와 소통하다'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발표·토론자는 이도원(서울대 교수), 천득업(전남대 교수), 이호준(무렵아이스탄 불대 교수), 아사쿠라 토시오(오사카 국립민족박물관 교수) 등이다. 문의 02-320-8841.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작가 '퀵 21 아트페어' 대거 참가

광주문진위 지원 사업
정광희씨 등 9명 선정

광주 지역 작가들이 오는 10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퀵 21 아트페어'에 대거 참여한다. 지역 작가들이 유럽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단체로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건태·이하 광주문진위)는 22일 '퀵 21 아트페어' 참여작가로 정광희·정은화·박수만·조강현·진원장·고근호·최재영·이매리·김숙희씨 등 9명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문진위는 지역 미술인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제 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인예술시장 입주작가 15명 모집

올해 2월부터 시작한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총괄 큐레이터 박성현)가 하반기 입주작가 15명을 공모한다.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현재 장·단기 작가 25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아트페어 참가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화가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광주문진위는 지난 19일 선정심의회를 열고 참여 작가를 확정했다. 심사는 김익모·정금희·이정훈·정순호·양승찬씨가 맡았다.

광주문진위는 기본 부스 비용 1천 600만원을 지원하며 아트페어 참여 화랑인 나인 갤러리와 참여 작가들이 추가 부스 비용과 통역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퀵 21 아트페어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일에서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며 유럽 60여개 갤러리를 비롯, 다양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572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실거래가	최저가
광주	소매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상업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남구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상업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북구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상업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서구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상업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동구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상업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주택지	112/34	198㎡	7천5백	12억9천

• 서구청영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업선·명도(이사)